지켜주심과 지켜내심

(창20:1~18)

1.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2.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3.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4.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5.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6.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7.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지켜주심과 지켜내심>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합니다.

'지켜주심과 지켜내심'
속담 하나를 떠올려봅니다.
"지키는 사람 열이 도둑 하나를 못 당한다."
이 속담에 근거해서 말하자면 지켜주는 것과 지켜내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을 것이에요.
가족들이 힘을 합쳐서 도둑을 막아냈습니다. 그러면 지켜낸 것이죠. 그런데 만약 동네사람들 중에서 동작도 빠르고 힘이 센 사람들이 와서 힘을 합쳐서 그 동네사람들이 지켜냈다고 한다면 지켜준 것입니다.
내게 있는 어떤 소중한 것을 내가 스스로 지키면 지켜낸 것이고, 내 것을 남이 지키면 지켜준

것입니다.
신앙의 불행이 있어요. 신앙의 불행은 신앙적 불신앙입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나는 신앙을 한다고 확신하고 있는데 전혀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이 아닌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적 불행이고 신앙적 불신앙입니다.
그러면 나는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은 전혀 기독교 신앙이 아닌 이러한 영적 불행이 왜 생기느냐?
아주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로서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하나님의 지켜내심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는데서 부터 신앙적 불신앙이 시작됩니다.
그 신앙적 불신앙의 상태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볼 때에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조상, 신앙의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한다고 하지만,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을 때에는 이 신앙의 조상을 잘못 이해하게 되는 경우가 계속 반복해서 생깁니다. 창세기를 진행하고 있는 동안에.

오늘 본문도 사실은 오해가 참 이해같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이야기가 끝이 나고, 롯의 간략한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롯의 자손들이 모압과 암몬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뒤에, 다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돌아오는데, 아브라함이 이주를 하게 됩니다.
마므레의 상수리나무 수풀에 거하던 시절을 끝내고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와서 나중에 블레셋이라고 부르는 지역 중에 아비멜렉 왕이 다스리는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 와서 머물게 되는데, 여기서도 24년 전의 그 버릇을 못 버리고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말하고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첩으로 데려가는 일이 발생하고 맙니다.
애굽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또 반복할 일입니까?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사건들이 또 일어나야 하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시는 주석가들에게 이 아브라함의 행동이 분노의 불을 지펴버리는 겁니다.
주석가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24년 전 애굽에서 바로에게 사라를 누이라고 해서 들여보냈던 그 잘못을 재현한 것으로서, 세월이 흐르면서 영적인 경각심이 무뎌졌고 흐려졌으며, 실로 아내의 순결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비겁하고 이기적인 자아를 지니고 있었고, 이런 몹쓸 인격적 속성은 아브람 때나 아브라함 때나 변한 것이 전혀 없고 어리석게도 인간적인 술수를 써서 위기를 모면하려다가 자신과 아내,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게 했던 파렴치한의 모습이었다.'라고 합니다.
주석하시는 분들이 아브라함의 이 사건과 연관 지어서 평해 놓은 것을 제가 대충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야기를 듣다보면 우리가 다 비참해져요.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이런 파렴치한이었구나. 비겁하고 치사하고 구차하게 목숨을 유지하겠다고 인간적인 술수를 쓰다가 자기 아내가 곤경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욕이 돌아가게 하고... 주석가들의 말대로라면 못난 인간 중에 이렇게 못난 인간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주석가들의 어떤 신앙적 인격의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더라도, 경륜적 차원에서 보더라도 의문점은 있어요.
무엇이 의문점이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바로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기 직전에 두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일 년 뒤에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라는 약속을 두 번 확인해주십니다. 내년에는 아들을 낳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들여보낼 수 있는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라가 너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두 번이나 약속을 해 주셨는데, 그 직후에 이사를 해서 사라를 아비멜렉 왕에게 누이라고 속여서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저는 정말로 ‘아브라함이 비겁하다. 파렴치한이다. 자기 목숨만을 위하는 이기주의자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의문이 가지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경륜적 차원에서 볼 때에, 이제 내년이면 이삭이 태어나야 되는 상황에서 아비멜렉에게 들여보내서 아비멜렉과 사라가 동침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의문점은, 아비멜렉의 여자 취향에 대해서 의문이 갑니다.
지금 사라가 경수가 끊어진 90살 된 할머니입니다. 조그만 나라의 왕인데, 그 나라에 사라만한 여자가 없겠습니까? 자기의 왕권을 가지고 첩을 얻고 싶었으면 다른 예쁘고 괜찮은 여자가 쌔고 쌨을 텐데… 떠돌이로 사는 90살 된 누이라는 사라를 왜 데려갈까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어떤 학자는 정략적인 결혼이 아니었겠느냐? 라고 하는데 그것에도 의문이 가는 것은 아브라함이 비록 부호긴 했지만 비록 작은 나라라도 그랄이라는 한 나라의 왕이 정치적으로 이해관계를 따져서 정략결혼을 해야 될 정도로 대단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정략적인 연합을 모색하더라도 그 집안에 있는 그럴듯한 여자를 찾아야죠. 차라리 하갈을 찾아야지 사라가 뭡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은 모자라지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고.
그러면 이게 어디 믿음의 조상입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드러낸 그런 죄악된 모습의 조상이지 무슨 믿음의 조상이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십니다.
어떤 면에서? 선택하신다는 면에서. 무슨 뭘 보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이미 당신을 계시하시고 인격적인 관계에 돌입한 상태에서는 무조건적일 수가 없지요. 모든 행동과 말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잘못된 것과 이탈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지 말아야 될 짓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시고, 그 관계를 맺는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십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잘못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보일 때에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덮어주시면서 가시는 분은 아니세요. 그러신 분이시라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내 죄를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받으실 필요가 없지요. 분명히 짚고 넘어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본문만을 보면 아비멜렉과의 관계에서 아브라함이 취한 행동에는 마치 하나님 입장에서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답대로만 움직였다는 듯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아비멜렉 꿈에 나타나셔서 깜짝 놀라 혼비백산하게 만드시고, 사라를 데려왔을 때부터 아비멜렉에게 신체상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라와 동침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여자들의 태를 다 닫아버리셨습니다. 어떤 신체상의 징후가 나타났을 거예요. 시기적으로 그렇게 임신을 구분해 낼만큼 여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니까.
여자들이 신체적으로 임신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징후들로 병을 주셨던 것 같아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기도를 함으로써 다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고, 아비멜렉도 화를 면하게 됩니다.

창세기의, 특히나 아브라함 이야기가 이상한 것은?
왜 이 사람 아브라함은 한 번도 “하나님! 이것 좀 지켜주세요. 저것 좀 지켜주세요”라는 간구가 없을까? 라는 것입니다.
왜 없겠습니까?
‘지켜 달라’는 간구는 반드시 이 땅 위에서 마음 안에 내가 소중하게 생각해서 사랑하면서 내 마음 안에 들여 놓은 것이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사업을 지켜주세요.”
사업이 소중하니까 마음에 들여놓았어요.
“하나님! 내 자식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세요.”
소중하니까 마음에 들여놓았어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세요.”
나라가 소중해서 마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지켜주세요.’

이 기도가 신앙에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다는 것을 거꾸로 보면 하나님만 내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시는 상태가 신앙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번 들어오신 상태에서 고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한 번 장치를 만들어 놓으면 계속 유지되겠지만, 인격적인 사건이고 사람은 눈, 귀, 코, 입, 피부의 5감각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고 있고, 계속해서 대상을 만나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계속에서 다른 것들이 침범해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몰아냅니다.
돈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돈을 지켜주세요”라는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마음 안에 하나님만 계시는 상태가 끝나버리면 신앙은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것들을 지켜달라는 기도는 신앙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달라고 할 수 있는 기도는 오직 유일하게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만을 향하도록 지켜주세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만을 향하기 위해서 이 세상 것들 자식, 부모, 아내, 남편, 사업, 내 인생의 꿈…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 마음이 그것들을 붙잡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지켜주셔서 십자가에 매달아 주세요. 십자가에서 내 마음이 내려오지 않도록 지켜주세요.”라는 기도만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켜주세요’ 말고는 다른 ‘지켜주세요’는 다 불신앙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자는 거예요.
24년 전에 애굽에서 바로 왕을 대면하게 될 것을 예상하고 즉흥적으로 사라를 누이라고 하자는 아이디어를 낸 것이 아닙니다. 또 그 사건 이후 24년 동안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다가 그랄 왕 앞에 서게 되면서 사라를 누이라고 하겠다는 아이디어를 다시 기억해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실 때의 그 시점부터, 떠나려는 행동을 하기 전에 사라에게 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 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풀어서 말하자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떠나라고 하신다. 내가 떠날 것이다. 떠나면 이방인들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고, 곳곳마다 이방인들의 왕들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다. 당신이 예쁘니까 누구든지 당신을 탐내서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아 갈 것이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니까 사라가 가지 맙시다. 우리가 왜 떠나느냐? 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 갈 수밖에 없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남편이 자기 때문에 죽을까봐 걱정을 합니다. 우리 남편은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떠나면 이방인들이 나를 뺏기 위해서 남편을 죽일 텐데, 라고 근심하고 근심하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누이동생이라고 하자"라고 말해준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건 전체가 말해주는 것은 무엇이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떠날 때부터 사라보다 하나님을 좋아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사라를 제쳐버리고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1등을 하신 겁니다. 이 1등 하신 하나님의 자리가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끊임없이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이 지구 위에 있는 다른 대상들에 마음이 빼앗기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죽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1등 되시도록 유지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똑같은 사건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이냐?
유지되었다는 겁니다. 한 마디로 하나님의 맨몸 프로젝트를 자발적으로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24년 동안 변함없이 아무 탈이 없었던 그동안도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아내 사래를 마음 밖으로 내놓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 결과 아브라함의 기도는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께 붙어있도록 지켜주세요. 라고 한 것뿐이었어요.

보세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후손에게 땅을 주겠다. 사라가 아기를 낳을 것이다."
어느 것 하나 아브라함 자신에게서 나온 소원과 뜻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켜달라는 이야기를 안 해요.
그리고 떠나면서 사라를 마음에서 내보냈습니다. 보낸 그 상태가 24년 동안 유지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은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있지 않은데, 하나님이 지켜내시는 겁니다.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말부터 시작해서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우리는 다 우리가 지키고 싶어 하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먼저 복을 마음에 집어넣고 복을 지켜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고, 자손도 하나님보다 먼저 우리 마음에 집어넣고 자식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아내와 남편을 지켜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다 내놓고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붙어있게 지켜달라는 것만 기도했고, 하나님께 마음 드리느라 다 내버린 땅의 것들을 하나님이 지켜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난 뒤로 사라를 붙잡아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곧 이삭이 태어날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삭을 통해서 성취되기 직전까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아비멜렉의 사건이 다시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지내고 있었느냐?
애굽 때와 똑같이 지내고 있었고, 아무 일 없었을 때에도 사라와 정이 들고 들었을 텐데, 그 사라를 마음에서 내보내고 오직 하나님이 1등 하실 수 있도록 마음을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간구는 오직 그것뿐이었다는 거예요.

자식을 결혼시킬 때에 궁합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궁합이라는 것은 생년월일을 따져서 그 생년월일에 해당되는 시점에 수성과 목성과 금성과 토성과 화성 5개의 별이 지구와 달의 역학관계 안에서 어떻게 변하느냐를 따지는 것입니다. 간혹 궁합을 보게 되면 남자가 불로 나타나고 여자가 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상극이 됩니다. 상극 관계이고 억압 관계가 되는 거예요. 상극이라는 것은 서로 세력이 같으면 공멸하는 것이고, 억압이라는 것은 한 쪽이 셀 경우에는 다른 쪽의 존재를 뭉개버리고 지양시켜버리는 겁니다. 남편이 세서 구박을 하게 되면 여자가 자기주장 자체가 없는 상태가 되든지, 여자가 세서 남자가 질질 끌려가든지, 아니면 둘이 공멸해서 이혼하거나 파탄이 나든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독교적으로 보면 불과 물처럼 좋은 부부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불과 물의 중간에 냄비가 끼게 되면 이상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불이 물에 직접 닿으면 안 돼요. 물도 불에 직접 닿으면 큰일 납니다. 둘 다 죽어요. 소방관이 불을 끌 때에 물이 세면 불이 꺼지는 것이고, 지구에서 불기운이 세면 사막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중간에 냄비가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냄비가 물을 담고 있어서 물이 닿고 있는 것은 냄비입니다. 밑에서 불이 올라오면 냄비가 불까지 받아들입니다. 물을 끌어안고 불을 받아들이면 끌어안고 있는 물속으로 불이 들어가서, 물이 끓는다는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물이 끓는다는 것은 물이 불을 받아들여서 연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상하죠?
둘이 직접 닿으면 공멸하는데, 냄비가 사이에 있게 되면 물속에 불이 들어가서 물이 끓습니다. 그 냄비 역할을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안 것은 무엇이냐?
아내와의 관계에서 내가 직접 아내에게 손을 대면 아내도 죽고 나도 죽는 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파렴치한이거나 비겁자인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논리를 알고 아주 경제적으로 대처한 것입니다.
물과 불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제3의 동성애라고 했지 않습니까?
피조성을 지닌 인간이 이 땅에서 다른 피조성의 존재인 사람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돈이든 지위든 예술이든 취미든 어떤 것이든 마음에 집어넣게 되면, 물과 불이 직접 닿는 것처럼 공멸의 길을 걷습니다.
인격적인 존재이고 피조성을 가진 인간이 이 땅 위에서 다른 피조성을 관계하는 방법은 한가지 밖에 없어요. 냄비이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냄비이신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지켜내십니다.
그러니까 나와의 관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대상들 회사, 재산, 명예 등의 피조의 세계에서 나와의 관계 안에 있는 것들을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림으로 돌보지 못해요. 그것들을 하나님이 지켜내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켜내실 수 있는 상황이 아브라함의 사라에 대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누이라고 속여서 내가 살겠다고 표현하는 이면에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일단 내 삶에 개입하셨고,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시작한 이상 내가 사라에게 직접 닿으면 나도 죽고 사라도 죽는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냄비에 불이 닿는 것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에게만 마음이 닿는 것이고, 사라도 이 아브라함의 말을 이해하고 시킨 대로 한 것입니다.
'내년에 당신의 씨를 받아서 이삭을 낳아야 하는데 그럴 수 없어. 당신이 불신앙적으로 아비멜렉에게 들어가라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켜야 해서 못 들어간다.'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둘 다 서로에게 닿지 않습니다. 둘 다 하나님께만 집중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이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가르쳐 주시느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내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이 세상 것들을 빼냄과 동시에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다 하나님의 일이 되어 하나님이 지켜내시면서 계속 일을 해나가시는 것이지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게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바랄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 십자가에 붙어 있는 것만을 지켜주시기를 바랄 수 있을 뿐입니다.
그것만 지켜져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1등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지켜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내셔야 될 것들을 자꾸 지켜달라고 하고, 진짜 내가 지켜달라고 해야 하는 내 마음이 하나님께 붙는 일에 대해서는 다 된 줄로 알거나 망각하고 있으니까 신앙에 불행이 오는 것이고,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 것이 아닌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삶에 대해서는 지켜내십니다.

지켜내신다는 것은 뭡니까?
나에게서 일어나는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내시지 않는 것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내시도록 기회를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키겠다고 하나님까지 동원하는 것은 뒤집어진 것이고 제3의 동성애자로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니,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다 즉사했지요.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십자가로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에 관해서는 지켜내시는 분이시지 지켜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
이 땅의 모든 것은 내 마음에 들어올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오늘도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를 통해서 현상 이면의 깊은 곳에 있어야 되는 신앙적 진리를 보여주셨으니, 이 진리를 따라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함으로 부부관계, 부모자식관계, 직장관계… 하나님께서 다 지켜내시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